

結婚適應度에 따른 衣服行動에 관한 調查研究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李宣炅 · 姜蕙遠 · 趙吉洙

延世大學校 家政大學 衣生活學科 *全南大學校 自然科學大學 衣類學科

A Study on the Clothing Behavior of Home makers Related to Their Marital Adjustments

Sungyung Lee* · Hewon Kahng · Gilsoo Cho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Dept. of Clothing & Textiles, College of Natural Scien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1986. 10. 28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four aspects of clothing behavior and marital adjustment.

Marital adjustment was measured with the Spanier's Marital Adjustment Scale. The questionnaire measuring clothing behavior consisted of items designed to assess dressing for self, dressing for others, self-concept regarding clothing and dependence in clothing.

This questionnaire was selected and revised from inventories of such researchers as Pasnak, Sin, Lee, Park and Creekmore.

This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69 home makers in Seoul. Statistical analyses utilized in this study included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X²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Marital adjustment showed significant an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dressing for self, dressing for others, and self-concept regarding clothing.
2. Marital adjustment was negatively correlated to dependence in clothing.

I. 緒 論

의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각 개인과 연령에 따라 다르며, 특히 여성의 경우 젊은 여성이 나이가 많은 여성보다 의복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¹⁾. 그러나 기혼여성의 의생활은 그들이 안고 있는 환경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좀 더 미묘

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혼여성의 환경요인으로 결혼생활상태를 들 수 있으며, Hays²⁾는 결혼생활의 만족여부는 심리적 요인인 자아개념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결혼의 상태는 단순히 심리적인 만족·불만의 단계를 넘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빈번히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의복은 자기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양식이다. 즉 자기에 대한 정체감·기분·태도를 전달하는 의미있는 상징이며, 자기·가치자존심의 표현으로서 지각되고, 자기평가의 감정적인 한 요소가 된다³⁾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의복행동을 결혼생활의 심리상태를 반영하는 한 변인으로 보고 결혼상태를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의복행동변인, 즉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의복의존성과 결혼적응도와와의 상관성을 고찰하여 봄으로써 기혼여성의 심리적 요인을 내포한 의생활에 대한 이해증진과 아울러 그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생활을 영위케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II. 假 說

본 연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영가설을 설정하였다.

- 1)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 2)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 3)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와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 4) 의복의존성과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적 관심으로 1) 의복행동변인 상호간의 관계, 2) 결혼기간,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를 조사하였다.

III. 用語定義

1) 結婚適應性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구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뜻하며,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때 만족감과 행복감이 온다⁴⁾.

2) 衣服行動

① 自己 위주의 衣服着用: 자기 자신의 외적인 매력과 심리적 만족을 느끼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행동과 태도⁵⁾.

② 他人 위주의 衣服着用: 타인들로부터 외적인 매력을 인정받기 위하여 의복을 착용하는 행동과 태도⁵⁾.

③ 衣服에 대한 自己評價: 자기 자신의 의복착용상태, 방법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평가

④ 衣服依存性: 스트레스, 우울증 등의 해소를 위한 의복착용 및 구매.

IV. 理論的背景

결혼적응도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과의 관계

결혼에 대한 정의는 시대에 따라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다. 사회학에서는 결혼은 가족을 구성하는 가장 원초적인 결합관계로서 한쌍의 남녀가 비교적 영속하는 性的 關係를 맺으며 同棲關係를 갖도록 사회적 인정을 받는 結合⁶⁾이라고 보았다. 한편 Duvall⁷⁾에 의하면 결혼은 자기 다른 생활배경과 환경속에서 자라난 독특한 개성을 지닌 남녀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완전히 결합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결혼은 크게 안정성과 행복의 두가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행복은 만족, 성공, 적응등의 형태로서 연구되고 있다⁸⁾. 행복의 한 측면으로 연구되고 있는 「満足」은 일정한 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한 개인의 주관적 감정상태이며⁹⁾, 「適應」은 개체의 욕구와 환경과의 사이에서 조화를 구하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을 뜻한다⁴⁾. 따라서 결혼을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만족과 적응의 개념은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적응에 비교적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自我概念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아개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⁰⁾,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적응도에도 적용되어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

반면에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 주부는 적응을 잘 하는 주부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stress)를 받게 된다. Paykel^{11), 12)}에 의하면 스트레스란 생활에서의 사건변화로 인하여 유발된 정신적·신체적 변화에 따른 감정변화 및 고통스러운 정도라고 하였다. Brown¹³⁾은 특히 결혼상태가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고, Stewart¹⁴⁾등은 가정주부가 생활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우울증과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같이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으며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특정한 방법에 의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⁵⁾.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은 착용자가 자기 스스로의 용모를 볼 때와 타인이 그 착용자의 용모를 볼 경우에 각각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¹⁶⁾. 이러한 경우 Humphrey¹⁷⁾등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자존심이 높은 학생들이 의복의 심미성을 중요시하고 의복을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욕구가 만족된 사람이

는 의복이 자아의 표현수단으로 쓰인다고 하였다. rake¹⁸⁾ 및 Ford는 자이수용이 잘 된 사람일수록 자기 위주로 의복을 착용하며, 자이수용이 잘 안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보다도 타인을 의식하면서 의복을 착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영¹⁹⁾ 이은영의 연구에서 자이수용성과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고,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은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과도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은 서로 공존한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의복의 두 가지 기능, 즉 의복에는 사회적으로 타인에게 주는 상징적 역할과 개인적으로 착용자 자신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공존하므로 의복의 한가지 역할을 중요시 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다른 역할까지 중요시 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였다.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외모에 대한 자아개념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외모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의 상상, 타인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상상, 자기개념 등으로 구성된다. 이는 자신이 거울을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외모와 의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상상하며 스스로에 대해 평가한다는 Cooley의 편경자아 (looking glass self)이론²⁰⁾에서 유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Ryan²¹⁾은 자신감 및 자부심이 높은 학생일수록 자신이 의복을 잘 입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고, 또한 신옥순²²⁾은 자기 자신의 체형과 의복 착용의 스타일·방법을 포함한 외모에 대한 자기개념과 자아정체감 사이에 의미있는 정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Eterfat²³⁾도 사회적·감정적 적응문제와 의복 및 의복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의복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가진 학생일수록 사회적·감정적 적응면에서 덜 만족스러운 상태임을 발견하였다.

의복의존성

Johnson²⁴⁾ 및 Gurel에 의하면 Mendels과 Kline은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외모와 치장에 무관심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편 우울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 여러가지 행동을 취하게 되며 그 대표적인 행동양식 중에는 의복을 구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라는 보고^{25), 26)}도 있다. Fisher²⁷⁾는 우울한 사람일수록 그런 감정에서 헤어나오기 위하여 오히려 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다고 하였다. 그는 의복착용과 우울증과는 정적 상관이 있다고 보고 의복은 우울증 해소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자기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주장하였다. Worrell²⁸⁾ 역시 우울증과 의복관심과의 관계연구에서 의기소침한 사람일수록 자아개념을 높이는 수단으로 의복을 착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Johnson²⁹⁾ 및 Gurel의 연구결과에서는 우울한 사람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자신의 의복과 외모에 대하여 자아상을 더 높게 기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울한 감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우울한 기분에서 헤어나기 위하여 의복착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결론지었다.

V. 研究方法 및 節次

1. 측정도구

1) 결혼적응도 검사: 결혼적응도의 측정은 Spanier³⁰⁾의 Dyadic Adjustment Scale을 채택하였다. 이 검사는 네개의 하위척도 즉 부부의 일치도, 애정의 표현도, 부부의 만족도, 부부의 결합도에 관한 전체 32문항의 5점 척도 Likert-type으로 구성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지 않는 4문항은 제외시켰다. 결혼적응도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원변량분석 및 요인분석이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의복행동검사: 4개의 의복행동변인을 측정하는 총 37개의 5점 척도 Likert-type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위한 이원변량분석 및 요인분석결과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키고, 결과분석에는 총 31문항만이 사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및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Pasnak³¹⁾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번역·수정하여 총 20문항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결과분석에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낮은 문항을 제외시킨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8문항,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7문항이 사용되었다. 또한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문항들이 비슷하게 보였으나 요인분석결과에서 이 두 측정도구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측정도구는 서로 다른 독립적인 측정도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②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선행연구들^{22), 31), 32)}에서 사용된 9문항과 본 연구에서 작성된 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다.

③ 의복의존성: Creekmore³³⁾의 측정도구에서 선택한 우울증에 관한 3문항과 본 연구에서 작성된 스트

〈표 1〉 표집대상의 배경분포

n=269

결혼 기간	n	%	경제수준	n	%	교육수준	n	%
1~8 년	87	32.3	상	32	12.2	국민학교	5	1.9
9~14년	80	29.7	중상	86	31.7	중 학교	17	6.4
15~20년	59	22.1	중	120	44.6	고등학교	97	36.0
21년이상	43	15.9	하	31	11.5	초급대학	29	10.7
계	269	100	계	269	100	대학이상	121	45.0
						계	269	100.0

레스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자료 분석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1문항이 제외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이에 대응하는 행동으로서 의복을 구매하거나 착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의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가를 질문한 문항과 표집대상의 배경에 대한 사항(결혼기간,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을 포함시켰다.

2. 표집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미만의 非就業 가정주부로 표집대상을 한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설문지에 의하였다. 이 설문지는 비취업 가정주부 30명을 대상으로한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보완되었으며, 1984년 6월~7월에 걸쳐 임의로 선정된 지역인 반포동, 압구정동, 세브란스병원 출입자, 단독주택에 400부를 배부하여 360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불완전한 답안지를 제외한 269부가 통계처리에 사용되었다.

표집대상의 결혼지속기간은 자녀의 학업등급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결혼기간, 경제수준 및 교육수준의 분포는 〈표 1〉과 같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와 직접 관련된 이론적 배경이 체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는 점과 표본을 임

의로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 하는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VI. 結果 및 論議

1. 변인의 점수분포 경향

결혼적응도 : 가능한 점수범위는 28~140점이나 실제 획득된 점수는 53~132점(M=102.61, SD=12.64)이었다.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 가능한 점수범위는 8~40점이나 실제 획득된 점수는 16~40점(M=28.47, SD=4.64)이었다.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 가능한 점수범위는 7~35점이나 실제 획득된 점수는 14~35점(M=25.99, SD=3.71)이었다.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 가능한 점수범위는 10~50점이나 실제 획득된 점수는 16~48점(M=34.47, SD=5.08)이었다.

의복의존성 : 가능한 점수범위는 6~30점이나 실제 획득된 점수는 7~27점(M=16.57, SD=4.07)이었다.

2. 가설검증

가설검증을 위하여 네 측면의 의복행동변인과 결혼적응도와와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결혼 적응도와 의복행동 사이의 적률상관계수

n=269

독립변인 의복변인	결혼적응도 (r)	결혼적응도의 하위 변인 (r)			
		부부간의일치도	애정의표현도	부부간의만족도	부부간의결합도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20**	.20**	.09	.15**	.17**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31**	.27**	.17**	.29**	.25**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17**	.16**	.11*	.15**	.12*
의 복 의 존 성	-.16**	-.13*	-.02	-.20**	-.09

*p<.05 **p<.01

가설 1),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과 결혼생활의 적응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자기 위주로 의복을 착용함을 의미하므로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1)은 부정되었다.

가설 2),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과 결혼생활의 적응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타인 위주로 의복을 착용함을 나타내므로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2)는 부정되었다.

가설 3),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와 결혼생활의 적응도 사이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는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음을 의미하므로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와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3)은 부정되었다.

가설 4), 의복의존성과 결혼생활의 적응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결과는 결혼적응도가 낮을수록 우울한 감정이나 스트레스 해소로서의 의복을 착용하거나 구입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복의존성과 결혼생활의 적응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가설 4)는 부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결혼적응도와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에 있어서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에 대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욕구충족이된 사람에 있어서의 의복은 자아의 표현수단으로 쓰인다는 Humphrey⁷⁾; Klaasen; Creekmore의 보고와 자아수용이 잘 된 사람일수록 자기 위주로 의복을 착용한다는 Drake¹⁸⁾ 및 Ford 그리고 김미영¹⁹⁾이은영의 연구결과를 다 같이 지지한다.

한편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에 있어서는 자존심이 높은 학생들이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한 수단으로 의복을 사용한다는 Humphrey⁷⁾; Klaasen; Creekmore의 보고와는 일치하나, 자아수용이 잘 안된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타인을 의식해서 의복을 착용한다는 Drake¹⁸⁾ 및 Ford의 보고와는 상반된다.

본 연구에서의 자신과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이 결혼적응도가 높은 사람들에게 다 같이 높이 나타난 결과는 김미영¹⁹⁾이은영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과 같이 의복이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된다는 Stone¹⁶⁾과 Flügel³⁴⁾

의 진술로서 설명할 수 있다. 즉 의복에는 착용자 자신에게 주는 심리적 역할과 타인에게 주는 상징적 역할이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고, 한편으로는 의복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나 의복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이라고 사려된다.

둘째, 결혼적응도가 높을수록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가 높았다. 이 결과는 자신감 및 자부심이 높은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의복을 잘 입었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Ryan²¹⁾의 결과와 사회적 감정적 적응면에서 만족스러워 하는 사람들이 착용의복에 대한 문제가 적다는 Stepat²²⁾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일수록 모든 현상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므로 같은 수준의 의복디자인, 의복착용상태 및 방법을 평가하는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서 연유한 결과로 추측된다.

셋째,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의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결혼생활에 적응을 못 할수록 긴장되고 갈등을 느끼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우울해지는 정도가 높아, 긴장·갈등·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헤어 나오기 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취하게 되는데, 특히 여성들의 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 의복을 그러한 부정성을 해소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 중의 약 33%가 스트레스 해소로 의복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여 위의 사실을 좀 더 직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더 나아가 위의 결과는 의기소침한 사람일수록 자아개념을 높이는 수단으로 의복착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Ripper^{25~26)}, Fisher²⁷⁾, Worrell²⁸⁾과 Johnson²⁹⁾ 및 Gurel의 결과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은 일상생활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하나의 치료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과 또한 자신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의복행동변인 상호간의 상관관계

n=269

변 인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r)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r)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r)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35**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34**	.32**	
의복의존성	.08	.12*	.00*

*p<.05 **p<.01

〈표 4〉 결혼 기간에 따른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및 의복의존성의 차이

n=269

결혼기간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의존성		
	상	하	계	상	하	계
1~ 8년	60.9%	39.1%	100%	35.6%	64.4%	100%
9~14년	66.3	33.7	100	48.7	51.3	100
15~20년	54.2	45.8	100	47.5	52.5	100
21년 이후	40.0	60.0	100	24.4	75.6	100
전 체	57.6	42.4	100	40.2	59.8	100
$X^2=8.82^*$ df=3 *p<.05			$X^2=9.13^*$ df=3 *p<.05			

〈표 5〉 경제수준에 따른 자기위주의 의복착용 및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의 차이

n=269

경제수준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상	하	계	상	하	계
상	68.8%	31.2%	100%	65.5%	34.5%	100%
중상	60.5	39.5	100	55.8	44.2	100
중	57.9	42.1	100	43.8	56.2	100
하	35.5	64.5	100	25.8	74.2	100
전체	57.4	42.6	100	48.1	51.9	100
$X^2=8.12^*$ df=3 *p<.05			$X^2=13.05^{**}$ df=3 **p<.01			

3. 의복행동변인 상호간의 상관관계

의복행동변인들 즉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의복의존성의 상호관계를 상관계수로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과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는 모두 의미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의복의존성은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과만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4. 배경변인의 수준에 따른 의복행동의 차이

배경변인(결혼기간, 경제수준, 교육수준)에 따른 의복행동 사이의 차이를 X^2 로 검증한 결과,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의복변인은 〈표 4〉와 같다.

결혼기간이 오래된 집단에서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을 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복의존성에 대해서는 결혼지속기간이 9~20년 사이의 두 집단에 속한 가정주부가 8년 이하나 21년 이상의 집단에 속

하는 가정주부보다 의복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와 같이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의복착용 상태나 방법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표 6〉에서와 같이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들일수록 자신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의생활을 하였고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도도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복행동은 결혼생활의 적응도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은 자아표현을 위한 수단 및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자신의 의생활에 만족하였다.

또한 결혼생활에 적응을 잘 하지 못 하는 사람은 환경적응 및 극복의 수단으로서 의복을 활용하여 의복이 무의식적으로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적응여부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표 6〉 교육수준에 따른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 및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의 차이 n=269

의복변인 교육수준	자기 위주의 의복착용			타인 위주의 의복착용			의복에 대한 자기평가		
	상	하	계	상	하	계	상	하	계
중 출 이 하	31.8%	68.2%	100%	13.6%	86.4%	100%	36.4%	63.6%	100%
고 출	50.5	49.5	100	42.3	57.7	100	38.1	61.9	100
초급대이상	65.3	34.7	100	56.7	43.3	100	56.0	44.0	100
전 체	57.2	42.8	100	48.0	52.0	100	48.0	52.0	100
	X ² =11.62** df=2 **p<.01			X ² =16.20** df=2 **p<.01			X ² =8.81* df=2 *p<.05		

의하여 의생활 양상이 달라졌음을 본 연구에서 입증하고 있는 바, 결혼적응을 잘 한 사람인 경우는 더욱 만족스러운 의생활의 조건을 구비하므로서 보다 나은 결혼생활을 영위할 것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결혼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의복이 지닌 치유적인 기능을 잘 활용하여 보다 원만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引用文獻

- 1) Rosencranz, N.L., A Study of Women's Interest in Clothing, *Journal of Home Economics*, 41, 460-462, (1949)
- 2) Hays, M.P. and Stinnett, N., Life Satisfaction of Middle Aged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674, (1971)
- 3) Sontag, M.S. and Schlater, J.D., Proximity of Clothing to Self: Evolution of a Concep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8, (1982)
- 4) Landis, J.T. and Landis, M.G.,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U.S.A.: Prentice Hall Co., (1968)
- 5) Pasnak, M. F., Fashion Innovations Compared with Noninnovations on Clothing Attitudes, Self-Actualization and Tolerance of Ambiguity, Doctoral Dissertation,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Ann. Arbor, Mich.: University Microfilms, No. 68-15, 140, (1968)
- 6) 이효재, 서울시 가족의 사회학적 고찰, 논총, 이대한국문화연구원, 49, (1959)
- 7) Duvall, E.M. and Hill, R., When You Marry, N.Y.: Association Press, 24, (1953)

- 8) Hicks, M.W. and Platt, M., Marital Happiness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 Research in the Six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553, (1970)
- 9) Burr, W.R., Satisfaction with various Aspects of Marriage over the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2, 29, (1970)
- 10) Sawrey, J.M. and Telford, C.W., Adjustment and Personality(4th ed.), Ecstor: Allyn. and Bacon, Inc., 126, (1975)
- 11) Pakel, E.S., Prusoff, B.A. and Uhlenhuth, E.H., Scaling of Life Ev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5, 340-347, (1971)
- 12) Pakel, E.S. and Uhlenhuth, E.H., Rating the Magnitude of Life Stress, *Can. Psychict. Asso. J.*, 17, ss93-99, (1972)
- 13) Brown, G.W., J.L.T. Berley, *J.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68), (배영숙, 정신질환자의 스트레스 사건과 적응방법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1983)
- 14) Stewart, A.J. and Salt, P., Life Stress, Life-Styles, Depression, and Illness in Adult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1063, (1981)
- 15) Sidle, A., Moos, R., Adams, J., and Cady, P., Development of a Coping Scale,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20, 226-232, (1969)
- 16) Stone, G.P., Appearance and the Self, Roach, M.E., and Eicher, G.B., Dress, Adornment and Social Order, John Wiley & Sons, Inc., N.Y., 222, (1965)
- 17) Humprey, C., Klaasen, M., and Creekmore,

- A.M., Clothing and Self-Concept of Adolescent, *Journal of Home Economics*, 63, 248-250, (1971)
- 18) Drake, F.M. and Ford, I.M., Adolescent Clothing and Adjustmen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7, 289-290, (1979)
- 19) 김미영 이은영, 연령과 사회계층에 따른 의복불만감과 관련변인 연구—자아수용성과 자·타 위주의 의복착용—, *한국의류학회지*, 7, 30, (1983)
- 20) 강혜원, 의상사회심리학, 교문사, 242, (1984)
- 21) Ryan, M.S., Clothing: A Study in Human Behavior,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Co., 300, (1966)
- 22) 신옥순, 자아정체감과 의모를 통한 자기개념 및 개성에 관한 의복심리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7, (1981)
- 23) Stepat, D., A Study of Clothing and Appearance Problems in Relation to some Aspects of Personality and Some Cultural Patterns in a Group of College Freshman Girls, (1949), (Ryan, op. cit., 88~89)
- 24) Johnson, D.M.L. and Gurel, L.M., Depression: Relationships to Clothing and Appearance Self-Concep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3, 22, (1984)
- 25) Rippere, V., What's the Thing to Do When You're Feeling Depressed?-A Pilot Study,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5, 185-191, (1977)
- 26) Rippere, V., Commonsense Beliefs about Depression and Antidepressive Behavior: A Study of Social Consensu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5, 465-473, (1977)
- 27) Fisher, S., Body Consciousness: You are What You Feel, (1973), (Johnson and Gurel, loc. cit.)
- 28) Worrell, J.A., Relationship between Clothing Interest and the Mental State of Depression, (1977), (Johnson and Gurel, loc. cit.)
- 29) Johnson and Gurel, op. cit., 25
- 30) Spanier, G. B., Measuring Dyadic Adjustment: New Scales for Assessing the Quality of Marriage and Similar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27, (1976)
- 31) 이영윤, 중년기 여성들의 신체적 만족도와 의복행동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3-54, (1981)
- 32) 박광희, 여고생들의 의복행동과 성격특성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7, (1983)
- 33) Creekmore, A.M., Methods of Measuring Clothing Variables,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Project, No. 783, Michigan State University, 101, (1966)
- 34) Flügel, J.C., The Psychology of Clothes, London: The Hogarth Press, 15-16, (1950)